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그대의 자리는 따뜻한지요?



〈나가목연첩〉 추사 친필본

추사는 강상에 머물며 불경 연구에 매진하였다. 이는 1850년 2월 보름, 초의에게 보낸 편지와 〈완당전집〉 〈여초의〉 31신에 〈법원주림〉 백 권을 얻어 좋은 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나가목연첩〉에 수록된 편지의 말미엔 "승연노인 지월십일(勝蓮老人 至月十日)"라는 간지가 있는데, 지월(至月)은 11월을 이른다. 따라서 이 편지는 대략 1850년 11월 10일에 쓴 것이 분명하고, 승연노인(勝蓮老人)이란 호(號) 역시 강상 시절에 사용했던 것이라 짐작된다. 〈완당전집〉 〈여초의〉 및 〈영해타운첩〉, 〈나가목연첩〉에 수록된 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체의 소식이 미치지 않으니 정계(淨界:번뇌가 없는 깨끗한 세계)와 범로(凡路:번뇌가 가득한 속된 세계)는 이처럼 먼 것인가요. (이렇게 그대와 멀어진 것) 또한 사람이 스스로 막은 것이지 산하가 가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차 곱이는 일에 마음을 써서, 그대는 평소 깊고 깊은 열진 속에서 생각에 매임이 없는 것이 원래 당연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근래 추위에 수행하는 그대의 자리는 따뜻하고 편안하지요. 염려가 없습니다. 이 몸은 못나고 어리석기가 옛날과 같은데, 강상에 돌아와 머물며 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이것은) 번뇌 망상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주림〉 백 권을 얻어 좋은 날을 보내고 있는데, (스님) 곁에서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나머지는 인편 때문에 대략 알리며 이만... 승연노인, 11월 10일

(一切聲聞不及淨界凡路如是懸絕歎 抑人之自阻 山河非能阻 以此懸懸於竹 石流之間 知師無

“정계와 범로는 이처럼 먼 것인가”

신묘한 경계 열었던 초의차

추사 예술혼·불교적 사유 심화시켜

나날이 새로워지는 기쁨 '충만'

庸結想於十尺熱塵中 固宜矣 近寒團蒲暖安 念切此 癡癡如昔 來留江上 未及歸山 到底惱業 但得法苑珠林一百糾好作消遣 恨不使傍聽耳 餘* 硬 申不直 勝蓮老人 至月十日)

당시 초의의 소식이 한동안 끊겼던지, 그를 향한 추사의 일갈은 “정계(淨界:번뇌가 없는 깨끗한 세계)와 범로(凡路:번뇌가 가득한 속된 세계)는 이처럼 먼 것인가”였다.

서로가 멀어지고, 소식이 막힌 것은 산하(山河) 탓이 아니라 초의 자신이 막은 것이란다.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기(知己)의 범속을 초월한 경지를 인정했던 추사는 “그대는 평소 깊고 깊은 열진

속에서도 생각에 매임이 없는 것이 원래 당연하다”고 하였다.

자신의 벗, 초의가 생각에 매임이 없는 경지를 이룬 것은 바로 전다삼매(煎茶三昧)였다는 그의 확신은 “차 곱이는 일에 마음을 써서”라는 대목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맑고 시원한 차의 신묘한 경계를 열었던 초의차는 추사의 완숙한 예술혼과 불교적 사유를 더욱 심화시킨 매개물(媒介)에 따뜻하고 진솔한 성의가 담긴 초의의 편지나 차를 기다리는 추사의 마음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한편 추사가 편지를 보냈던 11월은 한겨울이다. 이런 엄동설한 중에 수행하는 초의의 안부가 궁금했던지 “추위에 수행하는 그대의 자리는 따뜻하고 편안하지요” “염려가 크다”고 하였다. 번뇌의 열업에 빠진 자신은 팔목(削目)할만한 성취도 없이 “못나고 어리석기가 옛날과 같다”고 한 것은 분명 그의 겸손함이 드러나지만 뜻이 통하는 벗에게 부러보는 투정은 아닐까.

강상에 머물던 추사는 의형적(義形)인 답답한 나날을 보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불경 연구하고, 차를 마시며, 가장 학인(學人)다운 여유를 즐겼던 시기였으니 “〈법원주림〉 백 권을 얻어 좋은 날을 보내고 있다”는 그의 말은 벗을 안심시키기 위한 희언(戲言)만은 아닌 듯하다.

그의 아쉬움은 오직 초의와 함께 불경을 참증(參證)할 수 없는 것뿐이라니 그의 일상은 분명 나날이 새로워지는 기쁨으로 충만(充滿)되었던 시기였으리라.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SNS는 부처님 말씀 전하는 소통의 창구”

희망플래너 이준길 씨 (정교회 온라인 위원회 미디어 담당)

2003년 1월, 미국의 폭격을 받아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에 JTS국제구호 활동을 하러 갔던 스물 한 살의 청년은 아비규환의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곳의 실상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던 그를 보고 그곳의 아이들은 도망을 갔다. 오랜 시간 전쟁을 겪은 아이들이 카메라를 총으로 착각한 것이다. 밖에 그려진 아이들의 그림은 죄다 총과 탱크 같은 것들이었다. 부모도 절도 덮을 담요 없는 아이들에게 전쟁은 우연히 들이닥친 재앙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청년은 108배를 하며 평평 울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부처님께 물었다. 당시 재학중이던 서울교육대를 나와 평범한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험벗은 아이들을 위한 봉사자가 될 것인가? 답은 너무나 뚜렷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한 보현행을 펼치자”

정교회 활동가 이준길 씨(온라인위원회 미디어 담당)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정교회 상근 활동가를 선택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주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정교회에서 대중생활을 하는 활동가로 북한동포돕기, 청춘콘서트, 즉문즉설 온라인 홍보 등에 힘을 쏟았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정교회와 그 산하단체들의 사업이지만 세상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SNS 포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알려졌고 다음 블로거 특종상을 그리고 2011년도에는 대상까지 받게 된다. 특히 그의 블로그는 북한의 식량난을 세상에 알리는 유일한 블로그로 주목을 받았고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블로거가 유명해지면서 갑자기 스님 책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즉문즉설〉 책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어요. 정도출판에서는 계획에 없던 인쇄를 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죠. 또 젊은이들 사이에 스님의 즉문즉설이 폭넓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를 즈음해 정교회에서도 블로그 전담 소임만 맡게 되었죠. 그만큼 홍보 효과가 컸어요.”

군인들 고충 어루만지는 군중병으로

이렇게 희망플래너의 블로그는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을 밝혔지만 이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된다. 임명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입대하기 전 밤 11시까지 정교회 회원들에게 블로그 교육을 하고 다음날 새벽 블로그에 군대가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2009년 2월 입대를 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군으로 열심히 군복무를 하던 중 그에게 또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상병으로 진급할 무렵 그가 속해 있던 맹호부대 연호사 군중병으로 배치를 받게 된 것이다.

“다리를 다쳐서 의무대에 갔다가 군법사 법기 스님

약자의 아픔 알리는 희망 메신저가 되다

온라인상에서 본명보다 희망플래너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그는 희망편지 페이스북 친구 4만 8천명, 트위터 팔로워 3만 8천명, 메일링서비스 3만 3천명 등에게 매일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와 즉문즉설 등을 전하고 있다. 젊은층을 위주로 하는 SNS 포교의 성과를 특출히 일구어 낸 것이다.

이 씨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이는 2008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종교기 식량난으로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했지만 세상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만 사회문제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었다. 북한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시 정교회 지도부사 법륜 스님은 70일 단식에 들어갔고 정교회 활동가들은 북한돕기 서명운동을 하러 거리로 나섰다.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널리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서원을 세운 이 씨는 젊은이들에게 당시 가장 아파하고 있던 블러그를 선택했다. 하지만 해외 NGO활동과 북한동포 돕기 운동을 하며 현장 위주의 봉사활동을 펼치던 그에게 온라인상의 블러그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나름의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 북한 소식을 알렸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하루에 한 명도 방문자가 없을 때도 있었고 많은 날은 고작 10여 명 정도였다.

“왜 방문자들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파워 블러그를 연구했어요. 소위 잘 나가는 블로거들을 찾아 읽어보면 글의 서론 본론 결론이 뚜렷했고 사진과 동영상도 가미되어 있어 대중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파워 블러그 수십개를 탐독했다. 이렇게 한 달 가량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00선생님의 사발 사연’이란 단 한 건의 글로 20만 명이 희망플래너 이준길 씨의 블로그를 방문한 것이다. “북한의 굶주림을 알리기 위해 사발을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글을 올렸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20만 명이 다녀갔어요. 다음 사이트 포털 메인에까지 글이 실렸죠. 다른 전문가 블로그와 대등한 평가를 받았어요. 큰 충격이었죠. 블로그가 하나의 언론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북한 돕기 운동을 두고 어떻게 글을 쓸까를 매일 연구했고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소재들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인도 브라만 출신의 엘리트 프리앙카 씨가 활동가가 되어 북한동포를 돕는 사연, 영화 크로싱을 본 탈북 청년의 소감 등을 올리면서 30만명의 방문자가 그의 블로그를 방문했다. 주 1회씩 올리던 글을 매일 올리면서 그의 블로그는 많은 이들에게

JTS 아프가니스탄 구호활동 다녀와

교사의 길 접고 정교회 활동가 입문

북한식량난 알리고자 블로그 제작해

다음 파워블로거 특종상·대상 수상

군중병 시절 법당예절 3D동영상 제작

법문포켓북 〈힘내라 청춘〉 후원 제작

2만권 무료배포·군자살 예방 캠페인도

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정교회에서 활동했던 얘기를 했더니 스님께서 대대에 군중병이 병으로 전역을 해 자리가 비었다며 군중병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죠.”

이렇게 군중병 소임을 맡게 된 그는 법회 진행, 마음 나누기, 불교상담 등을 통해 군인들이 군생활에서 갖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의 정성을 군인들도 느끼게 된 것일까? 처음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던 법회에 150명이 참석을 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법회 참석 인원이 늘어나자 봉사자가 필요했어요. 중대별로 1명씩을 선발해 15명을 모았어요. 1박 2일 수련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불교에 대한 개념을 일깨워 주었죠. 그리고 법회 운영시스템을 갖춰서 봉사자들에게 각자의 소임을 주어 법회를 운영했어요. 사회, 음향, 공양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주니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이후 군법당 예절 형식을 매뉴얼화해 전육군에 배포했다. 호랑이가 군복을 입고 나와 설명하는 법당예절 3D 동영상은 병사들이 손쉽게 사찰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초청강연도 마련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배우 김여진 씨, 노회경 작가 등을 초청해 위로 강연을 펼쳤다. 그리고 삼고초려 끝에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법륜 스님을 초청하기에 이른다. “맛보기 영상을 통해 법회를 알리고 질문지를 미리 나누어 주면서 스님의 법회를 홍보했어요. 당시 사진 질문지만 100개를 받았어요. 분류해보니 대표질문을 10개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주로 여자친구와의 이별, 사회와의 단절, 선민의 괴롭힘, 말안 듣는 후임 등으로 내용을 분류할 수 있었죠.”

2010년 7월 법륜 스님을 군법당으로 초청해 법회를 여니 700여 명의 장병들이 모였고 반응 또한 뜨거웠다. “당시 군인들의 자살문제도 사회문제로 부각 되던 때였어요. 이 법문을 녹취해두었다가 책으로 배포하면 군생활을 힘들어하는 군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북한 식량난과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을 실은 블로그로 2011년 다음 블로거 대상 수상 장면.



2003년 1월 아프가니스탄 봉사활동을 계기로 봉사의 삶결심

www.shcandle.com

2014 신상품 삼환양초

• 향기종 연꽃나비-7.4φ x 29cm
• 향기종 금나비-7.4φ x 29cm
• 향기종 108나비-7.4φ x 29cm
• 향기종 연꽃나비-7.4φ x 29cm
• 향기종 나비-7.4φ x 29cm
• 분다래 나비-5.6φ x 27cm
• 일대 나비-4.7φ x 25cm (일남, 약학, 식물성)
• 옥각초 나비-7.5φ x 45cm
• 3X6 꽃과 나비-7.4φ x 14.5cm
• 향기종 사군자 반아-7.4φ x 29cm
• 3X6 사군자 반아-7.4φ x 14.5cm
• 무궁화 반아 향기종 양초-7.4φ x 29cm
• 무궁화 반아 분다래 양초-5.6φ x 27cm
• 무궁화 반아 일대 양초-4.7φ x 25cm (일남, 약학, 식물성)
• 무궁화 반아 1호 양초-5.9φ x 18cm
• 일남 / 약학 / 약학 양초 연꽃 양초-7.0φ x 33cm
• 약학연꽃1호-5.9φ x 18cm
• 한방 일남 금강산 세트-5.9φ x 18cm
• 일대 연꽃 향기종 양초(일남, 약학)-7.0φ x 33cm
• 일대 연꽃 일대 향기종(일남, 약학)-5.6φ x 27cm
• 연꽃 1호 일대 향기종(일남, 약학)-5.9φ x 18cm
• 국산향
• 우리향, 미연향, 무향, 실목향, 인삼향, 대발향, 옥향, 백옥향, 옥향
• 수입향
• 대마리
• 향수향
• 후리지아
• 라일락향
• 영향향, 장단 (소파리)
• 향기종 12자-4.7φ x 25cm
• 향기종 옥동, 동향-7.4φ x 29cm
• 도자기 연꽃 소 가로 13cm 세로 17cm
• 대 가로 15cm 세로 19cm
• 파라핀 오일 (국내산 원재, 제조 상황양초)
• 크리스탈 향향 일남PC립초 9.5φ x 4cm(연소시간 약 12~18시간)

상담문의 031)766-0242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팩스 031)766-0233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